

업계동정

LG産電(株), 佛생태티엔느 비엔날레 한국 대표 출품

LD産電(株)(代表 : 李鍾秀)이 프랑스 생태티엔느 비엔날레(The Saint-Etienne Biennial Festival of Design)에 한국 대표 디자인의 자격으로 선정 제품을 출품한다고 밝혔다.

생태티엔느 비엔날레는 프랑스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산업 디자인전으로 생태티엔느 국립미술대학이 주최하고 세계 주요 50개국이 참가해 오는 11월 7일 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 LG산전의 전동공구가 한국의 현대 디자인을 대표하고 한국 디자인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실질적 측면이 우수하면서도 실험성과 미래지향적 특성이 강한 제품으로 선정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LG산전의 전동공구 시리즈는 그동안 국내외 각종 디자인 賞을 수상함으로써 이번 전시 우선권이 주어졌다.

LG산전은 이번 비엔날레 전동공구의 제품

통합 이미지(Product Identity ; PI) 정착을 위해 개발한 프로토타입(Prototype ; 시험 모델)에서 부터 실제 양산 디자인에 적용시킨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품한다.

LG 전동공구는 기존의 기계적 형상에서 탈피하여 부드러운 외관과 근육질적인 강인한 형상을 접목하여 친근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정교함과 기능·성능의 솔직한 표현으로 사용자의 편의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디자인전을 통하여 각종 디자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산업용 기기 분야에서 디자인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 출품을 통해 LG산전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LG 전동공구에 대한 유럽에서의 인지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壽永電氣企業(株), LG산전 UPS 사업 인수

壽永電氣企業(株)(代表 : 金學俊)이 LG産電(株)의 UPS사업을 양수키로 전격 합의하고,

UPS사업관련 자산매매 계약 및 관련 계약승계 계약을 체결했다.

LG산전은 그동안 다양한 기종의 UPS를 국산화 하는 등 고급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전개를 추진해 왔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사업 특성상 중소기업 영역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판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관련자산 및 기술자료 일체를 5억5천만원에 수영전기에 양도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LG산전은 관련업계에 UPS사업 양도의사를 발표한 후, 다수의 업체들로 부터 양수의사를 받아 기업재무 안전성, 기술력, 종업원 고용승계, A/S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수영전기를 최종 계약자로 확정했다.

따라서 LG산전은 관련 자산 및 기술자료 일체와 이동을 희망하는 관련인원에 대해서도 전원 인계하기로 수영전기와 합의했다.

LG산전 UPS사업팀은 SNMP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단상 경제형 UPS 및 ALL IGBT방식의 삼상 UPS 100KVA급을 국산화 하는 등 고급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UPS 및 전원기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LG산전은 지난번 5개 사업의 임직원 사업분할에 이어 이번 비주력사업의 양도를 통해 핵심전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수영전기는 본 계약체결을 통해 해외제품의 수입, 판매에만 열중해온 국내업체들보다 H/W 및 S/W 기술력 부문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UPS 기술자립도를 한층 더 높여 세계적인 UPS 업체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한 안정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시장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株)有裕, 릴레이 수출 추진 강화

(株)有裕(代表 : 鄭淳煥)는 올 들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릴레이의 수출비중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유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유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독일의 TÜV

와 VDE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 후지전기에 산업용 릴레이 샘플을 제공, 품질승인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고 해외 제품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외국 업체 및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제품홍보 활동을 강화하

는 한편 지난 '96년 릴레이 생산라인을 수출한 이란에 릴레이용 부품의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유유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릴레이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 60억원의 15% 수준인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본 후

지전기에 산업용 릴레이의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미국과 유럽지역에 대한 가전 및 통신용 릴레이의 수출이 본격화 되는 내년에는 수출 비중이 릴레이 총 매출액 70억원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美美電子(株), 더러워지지 않는 등기구 개발

조명기구 전문업체인 美美電子(株)(代表: 元鍾萬)가 광촉매(光觸媒) 반응을 이용해 먼지·세균 등 공기중 오염물질이 표면에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등기구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미미전자는 2년간 8억원을 들여 등기구 표면에 광촉매 반응이 강한 산화티타늄(TiO₂) 박막을 입히고 이 박막표면에 태양광 및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쬐이면 등기구 표면에 붙는 유기물을 완전 태울 수 있는 기술을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등기구는 반사판에 습기나 먼지가 붙어 반사율이 떨어지고 등기구 수명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제품은 이산화티탄과 자외선의 산화·환원반응으로 활성산소를 발생, 유기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등기구를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으며 오염으로 인한 조도저하를 방지해 15%

의 에너지절약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실내공간의 각종 세균을 소멸시켜 담배냄새 및 요리냄새·화장실 암모니아냄새·땀냄새 등 각종 악취를 70~80%까지 제거할 수 있다.

특히 기본소재인 산화티탄은 빛을 장시간 쬐어도 감소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태양광이나 형광등에 포함된 파장대역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이 필요없다.

경기도 파주공장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미미전자는 내달 신제품을 출시기로 했으며 대기오염이 심한 터널·가로조명분야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 종합전시관(COEX)에서 개최되는 「'98 한국산업기술대전」에 참여한다.

회사측은 광촉매기술로 인해 연간 400만달러의 조명기구 수입대체가 가능하며 욕실자재 및 도로표시판·차유리·병원침대커버·유리창 등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